

##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관계: 학급별 차별수준의 조절효과

최 은 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박통합과정

송 경 희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이 승 연<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수준에서 그 위험요인(사회적 위축)과 발달적 결과(우울)를 확인하고, 학급수준의 차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학급수준의 차별 간 층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7개 중학교, 86학급에서 수집된 1,11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급수준에서 차별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차별의 층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이 높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하는 학급에 속할수록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의 취약성이 항상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특성 뿐 아니라 학급의 맥락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우울, 차별, 다층경로모형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또래괴롭힘(bullying)은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래괴롭힘은 개인 또는 집단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기 위해 힘이나 공격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힘의 불균형에 기반하는 매우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Olweus, 1993).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을 경험하게 된다. 피해 형태와 무관하게 또래괴롭힘 피해는 단기적으로 내재화·외현화 문제 및 학교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박현선, 김민정, 정익중, 2014; Eastman, Foshee, Ennett, Sotres-Alvarez, Reyes, Faris, & North, 2018),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아동·청소년기에 또래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인기에 불안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Copeland, Wolke, Angold, & Costello, 2013), 성인기 우울증상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였다(Brendgen & Poulin, 2018; Katz, Conway, Hammen, Brennan, & Najman, 2011).

또래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자살 시도나 자살 사망은 또래괴롭힘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인데, 자살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우울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Hawton, Comabella, Haw, & Saunders, 2013). 집단 소속 욕구가 절정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Miranda, Oriol, Amutio, & Ortuzar, 2019; Newman, Lohman, & Newman, 2007). 뿐만 아니라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인간으로

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그 원인을 내적 결함으로 돌려 자기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우울 등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정세련, 정은지, 이승연, 2019; Graham & Juvonen, 2001). 일례로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도 우울을 예측할 수 있었고(김희진, 2017), 초5부터 고1까지 지속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안, 우울의 문제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김민정, 정익중, 2014).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한 우울의 증가는 횡단연구 뿐 아니라 종단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김예성, 김광혁, 2008; Dill, Vernberg, Fonagy, Twemlow, & Gamm,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고자 이의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에 취약하게 만들며, 청소년의 우울에도 기여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사회적 위축에 주목하였다.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피해자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기조절문제로 충동적으로 공격 행동을 하면서 또래거부나 괴롭힘을 당하는 공격적 피해자와 달리, 수동적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억제되어있으며, 가해자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는 순종적인 특성을 지닌다(Schwartz, Dodge, & Coie, 1993). 어떤 유형의 피해자이든 모두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동적 피해자의 경우 시간이 흘러 공격적 피해자가 되는 식의 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유형으로 구분된다(Toblin, Schwartz, Gorman, & Abou-ezzeddine, 2005). 무엇보다 이들의 순종

적이고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성향은 공격행동을 통해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려는 가해자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만든다.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 행동 억제, 사회적 고립과 침묵, 수동성, 비사회성 등 다양한 구인을 포함한다(Coplan & Rubin, 2010; 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흔히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또래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 고립된 행동방식을 택한다(Oh, Rubin, Bowker, Booth-LaForce, Rose-Krasnor, & Laursen, 2008). 또한 위축된 청소년은 순종적이며 비공격적인 행동방식을 보이므로 가해자들은 이들을 쉽고 약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또래괴롭힘의 타겟으로 쉽게 선택한다(Gazelle & Ladd, 2003; Schwartz et al., 1993; Wang, Duong, Schowartz, Chang, & Luo, 2014).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성향이고 기질적 특성이 강하고 발달과정에서 연속성이 발견되기 때문에(Rubin et al., 2009), 그리고 또래관련 요인은 사회적 위축의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선행연구에 따라(공미정, 이동형, 201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또래괴롭힘 피해의 예측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였으며(Boivin, Hymel, & Bukowski, 1995), 이러한 관계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종단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Guimond, Brendgen, Correia, Turgeon, & Vitaro,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도 연관되는데, 사회

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을 대체로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기보호적인 차원에서 위축 또는 회피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Erath, Flanagan, & Bierman, 2007).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복적 회피는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향상을 위한 기회를 박탈하여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회피행동은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관계성 욕구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안녕감이 떨어진다(Rubin et al., 2009). 특히 다수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종단적으로 예측함이 보고되었는데,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1년 뒤의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고(Boivin et al., 1995), 사회적 위축의 한 차원인 수줍음 수준이 아동기에 높을 경우 청소년기에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arevold, Ystrom, Coplan, Sanson, & Mathiesen, 2012).

한편,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의 부정적 효과는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들의 사회적 세계가 확장되고 집단 소속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사회적 역량이 요구되지만,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말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피하는 식의 위축된 행동은 청소년기 또래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또래 거부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Rubin et al., 2009). 실제로 개인의 공격적 행동보다는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이 청소년기 또래괴롭힘 피해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Brendgen & Poulin,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 괴롭힘 피해, 나아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직접 예측할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 피해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키는 매개모형을 가정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3, 4학년의 사회적 위축은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였고, 1년 후 부정적 정서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ill et al., 2004), 5세 때의 사회적 위축은 15세의 또래관계 스트레스와 적응문제를 통해 20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et al., 2011). Brendgen과 Poulin (2018)의 연구에서도 12세의 사회적 위축은 13-17세의 또래괴롭힘 피해를 통해 19-20세의 우울 증상을 설명하였다.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의 매커니즘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위의 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직접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직접적 관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직접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통해 우울을 예측하는 간접적 관계를 모두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가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1977)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은 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또래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차 관계가 아니라 주변인을 포함하는 집단 현상으로, 개인의 행동이 학급풍토나 규준 등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Rodkin, Espelage, & Hanish, 2015; Salmivalli, 2010). 예를 들어, 또래괴롭힘 피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개인적 속성인 또래 거부나 사회불안 등은 친가해적 행동 수준이 낮거나 방어행동 수준이 높은 학급에서 피해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Kärnä,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 사회적 위축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에서 개인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임은 분명하나, 이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적 특성과 맞물렸을 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공미정, 이동형, 2017; Kochenderfer-Ladd & Troop-Gordon, 2010). Rubin 등(2009)도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가 또래괴롭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다층분석 연구(Guimond et al., 2018)에서, 사회적 위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급규준이 있을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이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층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사회적 위축(수줍음형)은 학급의 풍토가 얼마나 통제적이고 방임적인지에 따라 괴롭힘 피해 정도를 달리 예측하였다(공미정, 이동형, 2017).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인 사회적 위축이 항상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놓인 환경적 특성에 따라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적 특성으로 학급의 차별수준을 고려하였다.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행위가 사회적 힘을 지닌 주류 문화(mainstream culture)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소수 집단(minority group) 구성원에게 행해지는 것처럼(Williams,

Neighbors, & Jackson, 2003), 차별은 그 자체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는 행위이다. 차별은 집단 구성원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 내에서 수용되는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을 중심으로 강자가 약자를 폄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현상(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으로, 또래괴롭힘이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는 것과 유사하다(Olweus,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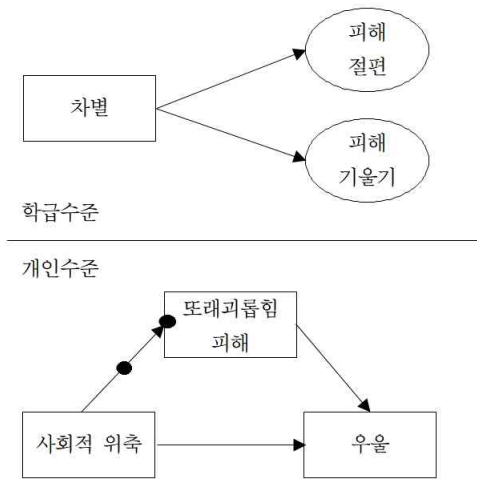
또래괴롭힘 연구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 간에 힘의 불균형이 큰 것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유발하고, 또래괴롭힘은 이를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된다. 실제로 다층분석 연구에서(Pan, Zhang, Ji, Garandean, & Salmivalli, 2020),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의 개인차가 커서 명확한 위계구조를 지닌 학급일수록, 사회지배적인 목표를 가진 가해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학급 구성원들 간 지각된 인기도의 차이가 큰 학급에서는 아동이 공격적일수록 지각된 인기도가 더 높아졌지만, 차이가 적은 학급의 경우 공격성은 오히려 인기도를 낮추었다(Garandean, Ahn, & Rodkin, 2011). 한편, 학급 내 힘의 불균형이 심한 학급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괴롭힘을 피하기 어려워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Schäfer, Korn, Brodbeck, Wolke, & Schulz, 2005).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학급 내 힘의 불균형에 주목하였고, 학급 내에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힘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급 수준에서 차별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청소년기 차별경험과 또래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민자,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예, 정주호, 2019; Shin, D'Antonio, Son,

Kim, & Park, 2011). 예를 들어,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인종차별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와 관련이 있었고(정주호, 2019), 국외 연구에서도 인종에 대한 지각된 차별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Seaton, Neblett, Cole, & Prinstein, 2013). 그러나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인종뿐 아니라 외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뿐 아니라,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김수정, 2020; Wright & Wachs, 2019). 그러나 일상적 차별경험과 또래괴롭힘, 특히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급 내 힘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학급수준의 차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촉진하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의 특성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약자를 향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급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위험요인이 또래괴롭힘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그 결과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별이 심하지 않은 학급에서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개인적 성향이 괴롭힘 피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 개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학급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많은 연구가 독립성 가정을 위배한 채 단층모형으로 학급특



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킴.

그림 1. 연구모형

성의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일한 학급에 속해있는 개인들 간 상관이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통계적으로 극복하고 학급의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분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층경로분석을 통해 개인수준 변인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학급수준의 차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지 층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Muthén과 Muthén(2017)의 제안에 따라 개인수준 매개모형에 검은색 점으로 절편과 기울기를 무선회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에서 관찰변수였던 또래괴롭힘 피해가 학급수준에서 무선회되어 잠재변수로 사용되므로 이를 원형으로 표시하였다. 또래괴롭힘

의 결과로서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들의 매커니즘을 확인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또래괴롭힘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증거기반 치료에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00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서울에 소재한 7개 중학교 1-3학년 1,67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무선회당 방식으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유선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허가한 학교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학생 역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2017년 11-12월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을 미완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1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86개 학급, 1,611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13.82세( $SD=.75$ ), 남학생 1,174명(72.9%), 여학생 437명(27.1%)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597명(37.1%), 2학년 684명(42.5%), 3학년 330명(20.5%)이었다. 이들이 지각한 가정의 평균 경제적 수준은 ‘중’-‘중하’ 수준이었다.

### 측정도구

### 사회적 위축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제작한 부모평정용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하위영역인 '수줍음 행동'에 대한 문항을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한 신선미(20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예,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이고,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수줍음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위축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되며, 그 하위요인으로 수줍음, 행동억제, 비사회성, 고립행동 등이 포함된다(Rubin et al., 2009). 그러나 수줍음 행동으로 명명된 본 척도는 수줍음 뿐 아니라 비사회성, 수동성 등 사회적 위축의 다른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사회적 위축'으로 크게 적용하고자 한다. 신선미와 이소연의 중학생 연구(2017) 및 본 연구 모두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또래괴롭힘 피해

Salmivalli 등(1996)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척도(Participants Role Questionnaire: PRQ)를 자기보고식으로 수정·보완한 서미정(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이번 학기(9-12월)동안 신체적(예, 다른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언어적(예, 다른 아이들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관계적 피해경험(예, 다른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없다 - 5점: 11회 이상)로 평정케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4, 본 연구의 경우 .84였다.

### 우울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Depression Scale(CES-D)을 10문항으로 축약한 버전(Andresen, Malmgren, Carter, & Patrick, 1994)을 사용하였다. 축약본은 노인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추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Bradley, Bagnell, & Brannen, 2010). 원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타당화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도구에서 해당 축약 버전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지난 일주일간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며(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1일 이하 - 4점: 5-7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학급수준의 차별

구정화(2016)가 개발한 일상적 차별 피해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차별, 학업성적 차별, 연령 차별, 경제적 차별, 지역 차별, 외모 차별, 종교 차별, 가족 유형별 차별, 장애 차별, 다문화가정 차별에 해당하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학급에서 경험한 차별 피해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한 번도 없음 - 5점: 1주일에 3회 이상)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많이 당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차별은 개인이 보고한 차별 점수를 합하여 (aggregate) 학급별 차별 점수를 만들고 학급수준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정화(2016)의 초등학교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먼저 SPSS 26.0를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고, 변인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Mplus 7.0을 활용하여 다층경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수준 변수인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매개 모형을 설정하고, 또래괴롭힘 피해가 학급 수준의 차별에 따라 학급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무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를 학급수준 변수인 차별이 조절하는지 확

인하는 층간 상호작용 효과는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random intercept - random slop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본 자료에서 남녀 성비가 남자(72.9%)에게 많이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예, Bass, Santo, da Cunha, & Neufeld, 2016)에 근거하여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은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된 변인들의 개인수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표 1). 먼저 성차 분석을 위해 *t*검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611)

	1	2	3	4	
1. 우울	-	.24***	.35***	.31***	
2. 사회적 위축	.34***	-	.15**	.05	
3. 또래괴롭힘 피해	.34***	.19***	-	.33***	
4. 차별	.35***	.13***	.46***	-	
왜도	1.02	-.06	1.76	3.43	
첨도	.74	-.39	3.41	18.47	
MSD	남(n=1,174)	1.79(.58)	2.33(.74)	1.62(.76)	1.32(.49)
	여(n=437)	1.98(.64)	2.35(.72)	1.40(.55)	1.28(.32)
<i>t</i>	-5.92***	-.57	5.43***	1.60	
Cohen's <i>d</i>	0.31		0.33		

\*\**p*<.01, \*\*\**p*<.001. 주.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위는 여학생의 상관계수임. 차별은 개인수준의 값임.



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 $t=-5.92, p<.001$ )과 또래괴롭힘 피해( $t=5.43, p<.001$ )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우울은 여학생, 또래괴롭힘 피해는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은 사회적 위축( $r_{\text{남}}=.34, p<.001, r_{\text{여}}=.24, p<.001$ ), 또래괴롭힘 피해( $r_{\text{남}}=.34, p<.001, r_{\text{여}}=.35, p<.001$ ), 차별( $r_{\text{남}}=.35, p<.001, r_{\text{여}}=.31,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 $r_{\text{남}}=.19, p<.001, r_{\text{여}}=.15, p<.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차별( $r_{\text{남}}=.13,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또래괴롭힘 피해는 차별( $r_{\text{남}}=.46, p<.001, r_{\text{여}}=.33, p<.0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은 왜도 3이하, 첨도 10이하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으나, 차별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층경로분석에서 차별은 학급수준의 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변환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1.42, 첨도 2.63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86개 학급의

차별수준은 평균 1.31, 표준편차 .13으로 나타났다.

#### 다층 경로분석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 매개 모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차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다층경로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한 결과 .071로 나타났고, 설계효과는 6.95로 나타났다. ICC가 .071로 나타나 또래괴롭힘 피해 변량의 7.1%가 학급수준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효과는 Muthén과 Satorra(1995)가 제안한 2보다 큰 6.95로 나타나 다층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무선 절편 모형

우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학급수준에서 차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는 무선 절편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 $\beta=.18, p<.001$ )

표 2. 무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의 모수 추정치 (N=1,611)

	B	S.E	$\beta$	t
개인수준				
사회적 위축 → 또래괴롭힘 피해	.17	.03	.18	5.30***
사회적 위축 → 우울	.21	.02	.25	10.86***
또래괴롭힘 피해 → 우울	.26	.02	.29	10.63***
학급수준				
차별 → 또래괴롭힘 피해	.69	.21	.58	3.26**

\*\* $p<.01$ , \*\*\* $p<.001$

와 우울( $\beta=.25, p<.0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또래괴롭힘 피해 역시 우울( $\beta=.29, p<.0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개인수준 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위축에 의해 설명된 또래괴롭힘 피해 변량은 4.5%이었고, 사회적 위축 및 괴롭힘 피해에 의해 설명된 우울의 변량은 19.5%이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4, 95\% C.I. [.03-.06]$ ). 한편, 학급수준의 차별은 또래괴롭힘 피해( $\beta=.58, p<.01$ )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또래괴롭힘 피해 변량의 33.9%를 설명하였다.

####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차별의 중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무선 기울기를 추가한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 특성인 사회적 위축과 학급수준 특성인 차별의 중간 상호작용 효과( $B=.56, p<.05$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차별을  $\pm 1SD$  기준으로 나누고, 사회적 위축 값의 전체 범위에서 각각의 회귀식을 구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2). 이 때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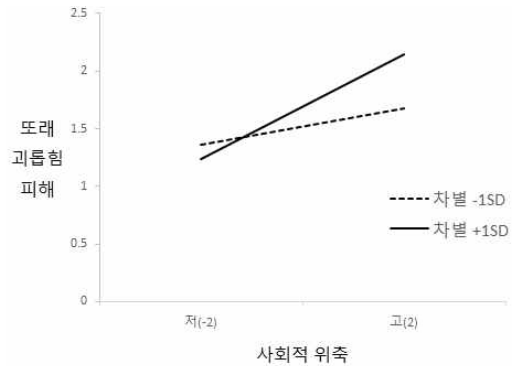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위축과 학급 차별수준의 상호작용

적 위축과 차별변인의 값은 모두 평균중심화하였기에 사회적 위축 값의 범위는 대략 -2에서 2이었다. 결과적으로, 차별수준이 높은 반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일수록 더 많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위험요인(사회적 위축)과 발달적 결과(우울)를 확인하고, 나아가 학급수준 특성인 차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를 또래괴롭힘 피

표 3.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random intercept-random slope)의 모수 추정치 ( $N=1,611$ )

		B	SE	t
개인수준	사회적 위축 → 우울	.21	.02	10.85***
	또래괴롭힘 피해 → 우울	.26	.02	10.66***
학급수준	차별 → 또래괴롭힘 피해	.65	.20	3.20**
중간 상호작용	사회적 위축 × 차별	.56	.25	2.23*

\*  $p<.05$ , \*\*  $p<.01$ , \*\*\*  $p<.001$

해가 부분 매개하였고, 학급수준의 차별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은 학급수준의 차별이 높을 때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욱 강력히 예측한다는 중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는 각각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일수록 혹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졌다. 이는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철회하고 회피하는 방식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경험 모두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한 기존 연구 결과들(김예성, 김광혁, 2008; Boivin et al., 1995; Dill et al., 2004; Karevold et al., 2012)과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이나 집단 소속감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Newman et al., 2007) 어떠한 이유에서건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자살을 예측하는 주된 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Hawton et al., 2013), 행동 특성 상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춘기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간주되어 시기적절한 개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은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고립된 행동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부모일지라도 빨리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큰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 성향이 있거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지 선제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게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고, 또래괴롭힘 피해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일수록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음이 많고, 비사교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장·단기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Brendgen & Poulin, 2018; Dill et al., 2004; Katz et al., 2011)과 일치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은 또래로부터 더 부정적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Rubin et al., 2009), 겁이 많고 수줍음이 높은 정서적 취약성과 함께 자기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동적 특성은 가해학생이 이들을 괴롭히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Gazelle & Ladd, 2003).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역시 소극적이고 회피적이게 하여(Erath et al., 2007), 결국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공격적인 또래로부터 보호해주고 도와줄 친구가 부족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학교시기에 사회적으로 위축된 개인의 특성이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 특성이 강한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을 위

한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하고,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교사의 개입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기술 훈련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을 위한 개입 전략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Rubin et al., 2009), 수준이 많은 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할 뿐 아니라 불안, 우울을 줄이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이현숙, 정현희, 2004). 나아가 또래괴롭힘 피해학생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예: 마음챙김, 인지왜곡 수정 등) 역시 또래괴롭힘 피해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연결되는 부적응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은 친한 친구가 부족하고, 자기개방이나 도움을 구하는 행동(help-seeking behavior)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 자살 사고가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들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하고, 이들이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은 개인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생태학적 체계모형을 기반으로, 다층경로분석을 통해 학급수준의 차별이 개인의 취약성인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기대했던 대로 학급수준의 차별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 수준에서 다양한 양상의 일상적 차별이 많이 발생할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Brendgen & Poulin, 2018; Dill et al., 2004; Katz et al., 2011)과 달리, 사회적 위축이 항상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않으며, 약자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학급 맥락에서만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차별을 학급수준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개인수준으로 분석된 연구에서 사회적 차별이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정주호, 2019)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개인의 차별경험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청소년의 분노와 공격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자 또래괴롭힘을 당할 가능성 또한 높이는 잠재성을 지닌다. 또래괴롭힘 자체가 또래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 학급 내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더 빈번하게 차별을 당함으로써 또래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차별경험 뿐 아니라 학급수준에서 차별적 분위기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혹은 차별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역시도 또래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즉, 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학급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져서 또래괴롭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위

축된 학생은 또래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차별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사회적 위축과 같은 취약성은 학급 맥락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달리 예측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공미정, 이동형, 2017; Guimond et al., 2018)는 개인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제안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학급 내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 학업 성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장애, 외모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교사-학생 혹은 학생-학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 따라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별은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 O'Gorman & Garry, 1976)에 의해 쉽게 발생하고 유지되기 때문에(Banton, 1986), 사람에 어떤 특성에 기반 하여 차별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학급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공유하도록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차별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연관되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존중(respect)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Lamont et al., 2016). 존중에 대한 이해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 증가와도 관련되므로(Malti, Peplak, & Zhang, 2020),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존중하려는 학급 분위기 형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의 매커니즘을 살펴보고, 학급수준의 차별이 개인수준

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지 밝힘으로써 또래괴롭힘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이 학급수준의 차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크게 차별화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의 사회적 기술증진,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 및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 마련 등 개인적 변화를 위한 개입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생이 또래로부터 배제되거나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게 개개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비차별적인 학급 환경을 조성하여 학급 내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최근에는 사회적 위축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각 하위요인별로 그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공미정, 이동형, 2017; Bowker & Raja, 2011). 그 중 수줍음 행동은 사회적 위축을 대표하는 행동 특성으로, 다른 하위요인보다 또래괴롭힘 피해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 바 있다(공미정, 이동형, 2017).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수줍음 행동은 비사회성이나 수동성 등의 사회적 위축의 다른 특성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사회적 위축' 변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후에는 순수하게 '수줍음'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개념적 이해를 더 명확하게 도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의 성비가 남학생에게 많이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72.9%) 연구결과를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을 조절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처리하였지만,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가 학생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Bass et al., 2016)는 후속 연구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각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방식이 달라 남학생의 경우 보다 주장적이고 힘 있는 모습이 우세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수줍음이 많은 남학생은 학교에서 더 큰 적응문제를 보일 수 있다(Rubin & Barstead, 2014). 반면 초기 청소년기에 사회적 친밀성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여학생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Ojanen, Findley, & Fuller, 2012).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사회적 위축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 시킨다면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서울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중하위라는 점 등은 본 연구결과가 특정 대상에게만 한정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적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은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상호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미정, 이동형 (2017).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2), 209-234.
- 구정화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정 (2020). 일상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3), 392-428.
-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예성, 김광혁 (2008).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 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아동학회지*, 29(4), 213-229.
- 김희진 (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187-209.
- 박현선, 김민정, 정익중 (2014).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발달유형에 따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양상. *사회복지연구*, 45(2), 5-30.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신선미, 이소연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

- 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1), 49-64.
- 이현숙, 정현희 (2004). 학교-기반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79-100.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세련, 정은지, 이승연 (2019). 남자 중학생의 또래피로힘 피해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 수치심,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79-98.
- 정주호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1(1), 119-15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 Banton, M. (1986). Pluralistic ignorance as a factor in racial attitudes. *New Community*, 13(1), 18-26.
- Bass, E. C., Santo, J. B., da Cunha, J. M., & Neufeld, C. (2016). Classroom context and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Cognitive Education and Psychology*, 15(2), 248-267.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 Brendgen, M., & Poulin, F. (2018). Continued bullying victimization from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of mediating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6(1), 27-39.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Copeland, W. E., Wolke, D., Angold, A., & Costello, E. J. (2013).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70(4), 419-426.
- Coplan, R. J., & Rubin, K. H. (2010).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childhood: History, theories, definitions, and assessments.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3-2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ill, E. J., Vernberg, E. M., Fonagy, P., Twemlow, S. W., & Gamm, B. K. (2004). Negative affect in victimized children: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attitudes toward bully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2), 159-173.
- Erath, S. A., Flanagan, K. S., & Bierman, K. L. (2007).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Behavioral and cognitive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3), 405-416.

- Eastman, M., Foshee, V., Ennett, S., Sotres-Alvarez, D., Reyes, H. L. M., Faris, R., & North, K. (2018). Profil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associated with bullying victim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65*, 101-110.
- Graham, S., & Juvonen, J. (2001). An attributional approach to peer victimization.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49-72). New York: Guilford.
- Garandeau, C. F., Ahn, H. J., & Rodkin, P. C. (2011). The social status of aggressive students across contexts: The role of classroom status hierarchy, academic achievement, and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699-1710.
- Gazelle, H., & Ladd, G. W. (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 - 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1), 257-278.
- Guimond, F. A., Brendgen, M., Correia, S., Turgeon, L., & Vitaro, F. (2018). The moderating role of peer norms in the associations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with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4*(8), 1519-1527.
- Hawton, K., Comabella, C. C., Haw, C., & Saunders, K. (2013). Risk factors for suicide in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7*(1-3), 17-28.
- Karevold, E., Ystrom, E., Coplan, R. J., Sanson, A. V., & Mathiesen, K. S. (2012).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shyness from infancy to adolescence: Stability, age-related changes, and prediction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7), 1167-1177.
- Kärnä, A., Voeten, M., Poskiparta, E., & Salmivalli, C. (2010). Vulnerable children in varying classroom contexts: Bystanders' behaviors moderat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8*(1), 261-282.
- Katz, S. J., Conway, C. C., Hammen, C. L., Brennan, P. A., & Najman, J. M. (2011). Childhood social withdrawal,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1227-1238.
- Kochenderfer-Ladd, B., & Troop-Gordon, W. (201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New directions in peer victimization research. *Merrill-Palmer Quarterly, 56*(3), 221-231.
- Lamont, M., Silva, G. M., Welburn, J., Guetzkow, J., Mizrahi, N., Herzog, H., & Reis, E. (2016). *Getting respect: Responding to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Isra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lti, T., Peplak, J., & Zhang, L. (2020). The development of respec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5*(3), 7-99.
- Miranda, R., Oriol, X., Amutio, A., & Ortúzar, H. (2019). Adolescent bullying victim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Can family and school adult support figures mitigate this effect?. *Revista de Psicodidáctica, 24*(1), 39-45.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7). *Mplus*



-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 user's guide. 8<sup>th</sup> Edition.*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Muthén, B. O., & Satorra, A. (1995). Complex sample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ological Methodology, 25*, 267-316.
- Newman, B. M., Lohman, B. J., & Newman, P. R. (2007). Peer group membership and a sense of belonging: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ce, 42*, 241-263.
- O'Gorman, H. J., & Garry, S. L. (1976). Pluralistic ignorance-A replication and exten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0*(4), 449-458.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53-566.
- Ojanen, T., Findley, D., & Fuller, S. (2012).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narcissism, temperament, and social goals. *Aggressive Behavior, 38*(2), 99-107.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lden: Blackwell Publishers.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 495-510.
- Pan, B., Zhang, L., Ji, L., Garandeanu, C. F., Salmivalli, C., & Zhang, W. (2020). Classroom status hierarchy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dominance goals and bullying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9*(11), 2285-2297.
- Rodkin, P. C., Espelage, D. L., & Hanish, L. D. (2015). A 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ullying: Developmental antecedents and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70*(4), 311-321.
- Rubin, K. H., & Barstead, M.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commentary. *Sex Roles, 70*(7-8), 274-28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2), 112-120.
- Schäfer, M., Korn, S., Brodbeck, F. C., Wolke, D., & Schulz, H. (2005). Bullying roles in changing contexts: The stability of victim and bully roles from primary to secondary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4), 323-335.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6), 1755-1772.
- Shin, J. Y., D'Antonio, E., Son, H., Kim, S. A., & Park, Y. (2011). Bullying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among Kore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73-883.
- Seaton, E. K., Neblett, E. W., Cole, D. J., &

- Prinstein, M. J.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latino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3), 342-50.
- Toblin, R. L., Schwartz, D., Gorman, A. H., & Abou-ezzeddine, T. (2005).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attributes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29-346.
- Wang, J. M., Duong, M., Schwartz, D., Chang, L., & Luo, T. (2014). Interpersonal and 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er victimization across middle childhood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1), 1934-1945.
- Williams, D. R.,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3).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health: Findings from communit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00-208.
- Wright, M. F., & Wachs, S. (2019). Does soci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and aggression among Latinx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73, 85-94.

원 고 접 수 일 : 2021. 05. 28.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7. 05.

최종게재결정일 : 2021. 07. 09.

## The Relations among Social Withdrawal,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room-level Discrimination

**Eun-ji Choi**

Ewha Womans University  
Integrated PhD Program

**Keng-hie Song**

Woos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eung-ye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withdrawal as an individual factor and discrimination as a contextual factor contributed to depression caused by peer victimiz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ported data of 1,611 students from 86 classrooms in 7 middle schools was analyzed, using multilevel path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er victimization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t the individual level. Social withdrawal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as well as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via high levels of peer victimization. Discrimination also positively predicted peer victimization at the classroom level. Moreover, classroom-level discrimination moderated the individual-level rel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victimizati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victimization was much stronger as the levels of discrimination in the classroom were higher.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when intervening to prevent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 peer victimizat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discrimination, multilevel path modeling